



# 공동합의성을 위한 시노드

## 교구 종합



뉴어크  
대교구

요셉 토빈 추기경  
미국 주교회의에 제출함  
2022년 6월 30일

# 목 차

---

소 개.....	2
뉴어크 대교구의 역사	
협 의 과 정.....	4
코로나-19 팬데믹	
인구통계	
협 의 경 험.....	7
준비와 과정	
주요 주제들	
소 개 .....	7
1. 본당 공동체: 환영, 환대, 봉사 활동(복음화).....	10
2. 청소년과 청년들.....	12
대학생들	
3. 신앙 교육.....	13
신앙의 전수	
성찬의 전례 거행	
어린이를 위한 신앙교육	
가톨릭 학교 교육	
4. 평신도의 교회 리더십 참여.....	15
평신도의 역할	
교회안에서 여성 리더십	
5. 운 영 .....	17
재정 협의회와 본당 평신도 사목협의회	
성직자	
성추행 스캔들	
6. 의사소통 .....	20
수도회들.....	21
대교구 .....	22
결론과 권고.....	23



## 소개

다음 보고서는 많은 시간의 듣기와 대화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이것은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전 세계 교구에 하느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의 만남, 그리고 교회에 대한 하느님의 뜻을 분별하는 시노드 과정에 참여하도록 초대하는 것에 대한 응답입니다.

아래에는 이 지역 교회에 대한 간략한 역사와 시노드 협의 과정에 관한 설명있고, 이 보고서의 독자들이 시노드의 다각적인 과정에 참여한 사람들이 무엇을 말했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요약된 내용과 권고안이 포함되어 있다. 이를 염두에두고 이 보고서의 독자들은 이 요약에서 중요한 포인트를 놓친 부분이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혹시 그렇다면 대교구 또는 본당 지도자들과 이 정보를 공유해주시시오. 이런 방식으로, 이 시노드가 구상한 "함께 걷는 길"이 우리의 이러한 노력을 넘어서길 바라고, 뉴욕 대교구에서 "교회가 되는" 길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 역사

뉴욕 교구는 1853년 교황 비오 IX의 교황의 서명을 통해 설립되었으며 뉴저지 주 전체를 포함했습니다. 그때까지 뉴저지 북부는 뉴욕 대교구의 일부였으며 뉴저지 남부는 필라델피아 교구의 일부였습니다. 뉴욕 교구의 첫 번째 교구는 멀베리 스트리트에 위치한 세인트 존스이며, 1828년에 설립되었습니다. 뉴욕 교구의 첫 번째 성직자는 엘리자베스 앤 씨튼 성녀의 조카인 제임스 루즈벨트 베일리 주교였습니다. 그는 1856년에 성모무염시대 신학교(I.C.S)와 씨튼 홀 대학을 설립하여 자신의 이모를 기리기 위해 이 대학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교구의 첫 번째 분할은 1881년 트렌턴 교구가 뉴저지 남부와 중부의 14개 카운티에 봉사하기 위해 창설되었을 때입니다. 두 번째 분할은 1937년에 Passaic, Morris, Sussex 카운티를 통합하는 Paterson 교구의 창설과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이로서 Bergen, Essex, Hudson 및 Union 카운티를 포함하는 현재 뉴욕 대교구의 영토가 설립되었습니다. 이후에 캠프 교구(1937)와 메타천 교구(1981)가 형성됩니다.

1937년 12월 10일, 뉴욕 교구는 대교구로 승격되었습니다. 1928년부터 뉴욕 주교로 봉사했던 토마스 제이 월시 대주교는 1938년 4월 27일 첫 번째 대주교로 임명되었습니다. 1853년 창립 당시, 뉴욕의 성 베드로 주교좌 성당이 그 자리로 사용되었습니다. 성심 대성당의 부지는 베일리 주교 때에 인수되었지만, 뉴욕의 세 번째 주교인 비난 M. 비거 주교 때인 1899년까지 건설이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뉴욕 대성당은 대교구가 백주년을 축하하면서 1954년에 완공되었으며, 1995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방문했을 때 대성당의 지위로 승격되었습니다.

오늘날 뉴욕 대교구는 Bergen, Hudson, Union, 그리고 Essex 네 개 카운티에서 1백 3십만 명의 가톨릭 신자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출처: 대교구 역사 기록 보관소



## 협의 과정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20 세기를 위한 길을 개척해 나가기 위하여 모든 교회가 기도와 경청과 분별력으로 성령의 목소리를 들으라고 권고하셨습니다. 특히, 모든 사람들을 공동합의성(Synodality)의 과정으로 초대했는데, 이는 모든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모임으로서 서로를 경청하고 나누고자 함입니다. 이번 공동합의성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람들의 일상 생활과 연결하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이 협의에서 수집된 모든 정보는 교회 지역, 대륙, 그리고 궁극적으로 2023 년 10 월 로마에서 있을 공동합의성을 위한 시노드(Synod on Synodality)에서 공유될 것입니다.

뉴욕 대교구의 신자들은 2023 년 전체 시노드를 준비하기 위하여 개최된 공청회에서 열렬하고 관대하게 응답했습니다. 교구민, 가족, 소외된 사람들, 부모, 교리교사들, 그리고 다른 많은 사람들은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함께 대화하고, 분별하고,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했습니다. 다양한 문화, 민족적 배경, 연령 집단 및 언어를 가진 사람들이 기도와 소그룹으로 함께 모였고, 성령께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이며 교회인 우리를 세상의 복음화를 위해 부르시는지 경청하고 분별했습니다. 불행히도, 대교구는 다른 그리스도교 종파나 다른 종교의 사람들과 청취 세션을 주최 할 수 없었지만, 시노드 과정이 계속됨에 따라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가까운 미래에 다른 많은 그룹이나 사람들을 만나 소통할 것입니다.

2017 년 요셉 토빈 추기경이 대주교로 뉴욕 대교구에 도착했을 때, 그는 27 개 지역(deaneries) 에서 타운홀 모임을 열었고 그들의 관심사에 대해 경청하였습니다. 이 시노드 협의 과정은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대교구에 요구한 기도와 분별력, 대화뿐만 아니라 참가자들이 지역 차원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하도록 돕는 또 다른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이번 시노드 공청회의 목표는 대교구 전체에서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이었습니다. 시노드 협의의 기획팀이 교구 협의를 조직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모든 사람들이 시노드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배울 수 있도록 정보 세션을 제공했습니다. 본당 평신도 사목협의회가 몇 가지 훈련을 추가하여 각 본당에서 공청회를 촉진하기를 희망했습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의 참여하도록 이끄는 데 매우 효과적이었습니다. 또한 사목협의회가 기능하지 않는 곳에서는 다른 지도자들이 공청회를 촉진하도록 하였습니다.

뉴욕 대교구 사목부에서는 또한 학교 사무실, 신앙 형성, 복음화, 청소년 사목 등 자신의 분야에서 공청회를 돕기 위해 지도자들을 훈련시켰습니다. 그들은 로마에 있는 시노드 사무실에서 모든 교회에 제공한 지침서인 "바데메쿰"( *Vademecum* )의 두 가지 근본적인 질문에 기초하여 질문을 만들었습니다. 그 질문들은 그 구성원들에게 적합하고, 특별히 대교구에 공식화된 것들입니다. 또한 협의회는 교구 부서가 교구 및 기타 기관에 어떤 방식으로 도움이 되고 봉사 할 수 있는지 이해하고자 했습니다.

히스패닉 사목 연구소에서는 지역 사회, 경청 및 분별력을 육성하는 모임(*Encuentro*) 모델을 기반으로 신앙 공유 유형 질문을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 이 보고서에 통합되었습니다. (히스패닉 사목 연구소에서 준비한 전체

요약은 부록 p. 22 참조) 이 협의 과정에 참여한 모든 그룹의 피드백은 다양한 대교구 부서가 본당과 다른 대교구 공동체의 실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할 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시노드 과정을 시작하기 전에 준비 할 시간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대교구 코디네이터들은 다른 교구의 자료들을 연구하고 자유롭게 공유했습니다. 대교구는 또한 유럽, 라틴 아메리카 및 아시아의 교구를 지원할 수 있었고, 로마 시노드 협의회는 뉴욕 대교구에서 만들어진 자료와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사람들에게 성공적으로 도달한 과정에 대해 감사를 표했습니다.

## 코로나-19 팬데믹

코디네이터들은 코로나 19 전염병이 협의 과정을 저해 할 수 있고, 또 신자들이 직접 모임에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하지만 반응은 훌륭했습니다: 놀라운 수의 사람들이 21 세기 안에 살고 있는 우리를 부르시는 성령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 기도하고, 경청하도록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대면 모임과 함께 직접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비대면 화상회의(Zoom)가 열렸습니다. 초기 우려에도 불구하고 비대면 화상회의는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본당들과 다른 기관들은 회원들과 소통하기 위해 안락 지대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도전을 받았습니다.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소셜 미디어, 비디오 녹화 및 기타 디지털 플랫폼에서의 새로운 경험은 대교구의 삶과 사명을 풍성하게 해주었습니다.

## 인구 통계

뉴욕 대교구는 많은 문화와 언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느 주말이나 미사 성찬례는 십여 개 이상의 언어로 거행되며, 세례받은 신자들의 가정에서는 더 많은 언어가 사용됩니다. 가능한 한 많은 신자들에게 다가 가기 위해 자료는 여러 언어와 스타일로 준비되었습니다. 두 가지 유형의 모델이 사용되었습니다. 첫 번째 공청회는 본당, 수도원, 학교, 종교 교육 프로그램 및 소외된 사람들의 그룹에서 개최되도록 계획되었습니다. 두 번째 모델은 스페인어권 공동체들 사이에서 사용되었는데, 43 개 본당에 걸쳐 약 212 개의 소그룹이 다섯 번의 모임을 가졌습니다. 스페인어 이외의 영어 및 기타 언어 그룹에서 참가자는 주로 여성 (65 %)이었으며 남성 (35 %)의 참여가 적었습니다.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그룹에서는 약 62 %가 여성이었고 38 %는 남성이었습니다. 영어 및 기타 언어 그룹의 참가자 연령은 주로 중년 이상이었지만 일부 청소년 그룹도 참여했습니다. 다음은 참가자의 연령에 대한 분석입니다:

*영어 또는 스페인어 이외의 언어로 진행되는 회의*

56 세 이상 (58%)

40-55 세 (20%)

20-39 세 이상 (7%)

20 세 미만(15%)

*스페인어로 진행되는 회의*

75 세 이상 (5%)  
56-74 세 (23%)  
40-55 세 (33.5%)  
26-39 세 (22.5)  
18-25 세 (9%)  
14-18 세 (7%)

#### 참가자 및 미사 참석

매일 또는 매주 (72%)

한 달에 한 번(27%)

드물게 또는 전혀 (1%) -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이전에 가톨릭 신자"라고 묘사합니다.

영어와 스페인어를 구사하는 사람들 외에도 포르투갈어, 아이티어, 필리핀어, 아프리카계 미국인, 폴란드인, 한국어, 베트남인, 중국인, 나이지리아인, 카메룬인, 케냐인, 그리고 다른 아프리카 국적자를 포함한 많은 다른 문화 유산들이 공청회에 참여했습니다. 흑인 역사의 달인 2 월 연례 축하 행사에서는, 가장 많은 참가자를 모으기 위해서, 아프리카 계 미국인, 아프리카 계 미국인 및 카리브해 사도직, 네 곳에서 미사 및 공청회를 가졌습니다. 이것들은 매우 즐거운 경험이었는데, 모든 공청회와 마찬가지로 참석률이 좋았고 흑인 가톨릭 신자들의 경험에 대해 깊이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소외되거나 교회와 사회의 주변부에서 있는 사람들에게 대한 봉사 활동은 가톨릭 자선 단체, 다양한 사회 센터 (예, Mercy House) 및 LGBTQ 그룹과 연계하였습니다. 본당의 공청회에서는 종교 교육을 받고 있는 어린이의 부모뿐만 아니라 장애인, 노인, 자택 및 허용되는 경우 양로원이나 노인 생활 시설에있는 사람들이 포함되었습니다. 인터뷰는 또한 투옥 된 사람들과 서류 미비 사람들과 함께 열렸습니다.

700 개가 넘는 공청회가 열렸으며 대부분은 대면 모임이었고 일부는 비대면으로 열렸습니다. 약 33 개 본당은 본당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쉬는 교우들에게 다가 가기 위해 자체 온라인 설문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영어로 된 삼 천 페이지 이상의 보고서가 접수되었고, 스페인어로 천오백 페이지가 접수되었습니다. 총 15,000 명이 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 협의 경험

## 준비와 과정

공청회를 준비하기 위해 정보 세션으로 시작된 교육 초안이 개발되었습니다. 뉴어크 대교구의 가톨릭 인구 규모 (네 개의 카운티 130 만명의 가톨릭 신자)를 고려하여, 28 회의 훈련 세션이 개최되었는데, 대부분은 대면으로 일부는 비대면 화상회의를 통해 개최되었습니다. 수백 명의 사제, 교구 직원, 수도자 및 평신도들이 참여했습니다. 이 모임에서 사람들이 시노드가 무엇인지, 무엇을 성취하기를 희망하는지, 그리고 본당 신자와 다른 사람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도와주기 위해 훈련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정보 세션은 본당, 종교 교육 책임자, 캠퍼스 사목자, 가톨릭 학교, 가톨릭 자선 단체 직원 및 고객, 대교구 직원, 수도자 및 기타 사회 서비스 직원들을 대상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정보 세션이 끝난 후, 공청회를 주최하는 본당 또는 조직의 코디네이터를 위해 진행자 교육이 제공되었습니다. 라이브 및 가상 교육 세션은 웹 사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비디오로 보완되었습니다. 비디오는 시노드 과정을 설명하고, 공청회를 촉진하는 방법을 설명하였고, 토빈 추기경님은 영어와 스페인어로 어른과 청소년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또한 영어, 스페인어, 폴란드어, 포르투갈어, 중국어, 프랑스어 및 한국어로 된 진행자 가이드 북 및 공청회 자료가 게시되었습니다.

이 세션을 조정하는 모든 사람들과 더 많은 정보를 원하는 사람들은 웹 사이트에 게시된 리소스를 이용했습니다. RCAN.org/synod. 각 본당과 사목의 요약해 보고하는 방법도 많은 그룹의 인구 통계와 피드백을 포착하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이 모든 자원은 그러한 큰 작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짧은 시간에 많은 준비가 요구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과 성령의 도움으로 대교구 전역의 사람들로부터 수천 페이지의 종합된 의견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협의 과정에서 많은 개인과 그룹이 비슷한 생각과 관심사를 표명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풍부한 공유를 요약하는 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반복과 아이디어의 중복이 있었습니다.

## 주요 주제들

각 본당의 보고서에서 공청회 참가자들은 본당 공동체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였고, 모든 사람을 사목하는 사제들과 돌보고 직원들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노드 협의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감사했으며, 그들은 이것이 단 한 번의 행사가 아니라 "교회가 되는 과정"의 규칙적인 특징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나이, 문화적 배경, 삶의 상태, 성적 정체성, 경제적 또는 법적 지위에 관계없이 본당에 나가고 환영하려는 압도적인 열망을 표명했습니다. 전염병은 본당 공동체의 사목 리듬을 혼란에 빠뜨렸으며, 본당이 어떻게 신자들에게 다가가려 했는지 또는 그렇지 않았는지에 큰 요인입니다. 전염병이 발생하기 전에 미사나 본당의 다른

행사에 정기적으로 참석했던 신자들 일부가 "사라졌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노인이거나 건강에 문제가있는 신자들은 큰 모임에 다시 돌아가는 것을 두려워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 어떤 신자들은 대부분의 본당이 계속해온 라이브-스트리밍 미사에 더 익숙합니다.

이 협의 과정에 참여한 히스패닉 가톨릭 신자들은 본당에서 "소외된"사람들의 그룹이나 주변부에 있는 사람들 대해 특별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특히, 그들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 본당에 참석하지 않는 젊은이들은 자신들을 위한 장소를 못하기 때문에 참석하지 않는다: 견진성사를 받은 후에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 다른 중독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 교적이 없는 사람들은 본당에 나올 때 다른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 물질적 도움이 필요하거나 감옥에 갇힌 사람들.
- 노인이나 병자, 간호 센터 또는 가정에에만 머무르고 있는 사람.
-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쉬는 가톨릭 신자들과 미사에 참석하면 어떤 본당 활동에도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
- 신앙을 잃어버렸거나 공동체에서 환영받지 못한다고 느끼기 때문에 교회에서 멀어진 사람들.
- 자주 직장이거나 거주지가 변경되어 본당 공동체의 일원이되기가 어려운 사람들.

참가자들은 본당, 종교 교육 프로그램 및 기타 사목에서 사람들을 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장 많이 인식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지역 공동체에 어떻게 환영하는지, 심지어 때때로 그렇게 환영하지 않는 방법에 대한 예를 공유했습니다. 그들은 특히 교회 밖에서 이혼하고 재혼 한 사람들, 서류 미비 이민자,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 청소년, 장애인, 사회의 변두리에있는 사람들, LGBTQ로 식별 된 사람들을 포함하여 환영받지 못할 수도있는 사람들을 언급했습니다. 접수 된 보고서에 따르면 코비드-19 전염병으로 인해 섯다운과 바이러스에 걸린 것에 대한 두려움이 대교구의 모든 지역의 대중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급변하는 문화, "아무것도 없는"(종교적 소속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들의 증가, 그리고 여성을 포함한 교회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의 증가와 함께 참가자들은 최근 몇 년 동안 본당 활동이 줄어들었다고 믿습니다. 이들과 다른 많은 요소들은 활기찬 가톨릭 공동체를 발전시키고 유지하기 위해 개선할 점이 있고, 또 그들의 성공을 보고자 격려 받고있는 지역 본당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현재 본당의 사회 봉사 및 정의 분야에서 봉사하기 위해 시행 중인 강력한 사목과 활동의 가치에 만족하는데, 여기에는 요양원이나 집에 있는 환자들을 위한 봉성체, 가난한 이들을 위한 무료식당과 식료품 지원, 전례 및 교리에 관련된 사목 등이 포함됩니다.

동시에 참가자들은 본당에 젊은 사람들을 포함시키는 사목이 긴급히 만들어질 필요가 있으며, 특별히 그들이 개인적으로 초대되고 참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히스패닉 공동체의 참가자들은 본당에 청소년들의 참여가 부족하다는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관찰 한 것은 :

- 많은 본당에서 주일 미사에 참석하는 청소년 비율이 매우 낮다.
- 히스패닉 사목을 하는 본당 중에서, 조직된 청소년 그룹을 가진 본당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 청소년 그룹이 있는 본당에서는 다른 청소년들과 연계하고 또 지역 사회를 위해 봉사 활동을 제공하는 데 성공합니다.
- 많은 사람들이 본당에서 젊은이들이 자주 초대되며, 그들을 위해 잘 조직된 본당 활동과 다른 양성 코스에 그들의 참여가 촉진되고 있다고 발표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모든 본당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일부 본당들은 그것에 대해 전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 일부 본당에서는 청소년 사목이 무엇보다도 교리 문답 프로그램 (견진성사 때와 견진성사 이후)이나 공동체 전례거행 (독서자, 복사단 또는 성가대)에만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견진성사 프로그램에만 참여한 청소년들은 본당에서 활동적인 회원으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 청소년들을 잘 조직하고 흥분되게 만드는 지도자가 부족합니다.
- 일부 본당에서는 청년 그룹이 기존에 사목적으로 조직된 그룹만을 위한 것이지, 전체 본당에 개방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교구 전역에서 젊은이들을 본당 생활에 참여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에 대해 많은 관심 있습니다. 많은 본당에는 헌신적인 청소년 그룹이 없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그리스도와의 개인적인 관계를 경험하도록 자극하고 움직임 영적 만남의 기회가 충분하지 않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십대들에게 적합하고 그들이 완전히 참여할 수 찬양 스타일을 포함한 전례 경험 (미사)이 부족하다는 것이 주목하였습니다. 또한 많은 본당에는 유스 그룹과 청소년들을 가톨릭 사회 가르침에 연결해줄 수 있는 봉사 기회들이 없습니다.

참가자들은 대교구의 청소년사목 사무실이 스페인어와 영어를 사용하는 청소년을 위한 피정,기도 및 봉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본당을 위한 청소년 사목자를 양성하는 데 큰 역할을한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많은 본당 신자들이 대교구가 제공하는 훌륭한 프로그램과 경험을 활용한다고 말했지만, 또 많은 본당들은 교구가 제공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보고서는 미사와 전례 행사가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좋다는 것을 말합니다. 청소년을 포함하여 사람들의 일상적인 삶과 직접 관련이 있는 더 나은 강론에 대한 필요성이 표현되었습니다. 음악은 좋은 것으로 인용되었지만 어떤 경우에는 참가자들이 더 현대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가자들은 젊은이들과 함께 기획자, 봉사자, 음악가 등으로 청소년에 맞는 미사전례를 갖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몇몇 논평은 교황 요한 XXIII (종종 "트리덴틴 미사"라고도 함)의 라틴 미사와 이러한 형태에 따라 미사 드리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존중 할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영어권 그룹에서는 다양한 청취 세션에 참여한 참가자들에 교회 가르침에 관한 두 가지 의견이 표현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의 교리와 규정의 일부, 특히 혼인 무효, 피임 및 임신, IVF, LGBTQ 문제 및 여성 부제와 사제 서품과 관련하여 현 시대의 상황을 반영해야 한다고 표명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이 바뀌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참가자들은 교회(특히 주교들)가 위와 같은 문제들에 대해 모호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종종 느낀다고 말했고, 이것은 혼란을 야기한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오늘날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 교의와 교회 규정이 수정되어서 교리 문답에 업데이트 되어야한다고 제안했습니다.

## 참가자들이 확인한 주요 주제들(종합)

### 1. 본당 공동체 : 환영, 환대, 봉사 활동(복음화)

전염병은 본당 신자들에게 다가가 그들을 연결시킬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많은 본당들이 일요일 미사만 아니라 매일 미사를 생중계한다. 본당들은 소셜 미디어, 전화, 편지 등을 통해 소통했다. 시노드 보고서에서 신자들에게 다가가고 그들을 환영해야 할 필요성이 중요한 우선 순위 중 하나였다. 제기된 핵심 포인트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 신자들이 본당에 다시 나오도록 초대하고 강한 공동체를 건설하는 방법을 찾으시오.
- 청소년, 청년, 그리고 종교교육을 받는 자녀를 둔 사람들을 포함하여 주변부에있는 사람들과 소외된 사람들에게 다가가시오.
- 이혼하고 재혼 한 사람, LGBTQ, 장애인, 이민자, 다양한 문화 단체 및 지역 사회의 다른 사람들을 환영하라. 많은 사람들이 한 본당으로서 문화 및 언어 그룹을 함께 모으고 싶다는 열망이 있다.
- 사회 정의와 사회 봉사 활동을 계속 장려하라. 이것은 본당에 필수적이다. 난민 봉사 활동, 보건소, 무료 식료품 지원, 환자 봉사체 등의 사목이 많은 본당에서 잘 번성하고 있지만, 더 많은 사람들에게 봉사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한다.
- 본당 사도직에 대해 인지하고, 본당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계속 인식하라. 많은 본당들이 지금 이야말로 더 많은 사람들, 특별히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그들의 세례 때 소명에 비추어 교회의 공식적인 사도직에 참여할 때라고 설명했다.
- 선교사가 되어 새로운 사람들 그리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기쁨으로 다가가라.
- 본당 신자들에게 복음화 사업에 헌신하는 선교사 제자가 되도록 격려하라.
- 본당 신자들을 돌보고 함께 동행하는 활기찬 공동체를 건설하라.

히스패닉 공동체 신자들은 평신도들이 교회의 사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권유받는다고 느끼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공동체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들어준다고 생각하고, 공동체 생활의 필수적인 부분이 되도록, 특별히 어려운 시기에,

사제들과 평신도 지도자들에 의해 격려를 받았다고 말한다. 이것은 종종 다음과 같이 표현되었다:

- 본당 공동체가 모두에게 제공하는 환대, 특별히 새로 온 신자들을 환영하고 진실하게 의사 소통함.
- 본당 사도직/ 그룹 또는 본당 활동에 참여하라는 끊임없는 초대. 전례와 교리 및 종교 교육 양성 과정 모두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여러 사도직 그룹을 통해 그들의 재능을 기부하게 함.
- 평신도 봉사자들의 진정성과 열정, 삶을 통한 그들의 증거, 그리고 그들이 공동체 안에서 베푸는 봉사.
- 공동체가 본당을 하나의 가족으로 단결시키는 다양한 본당 활동에 참석하는 사람들에게 베푸는 따뜻함. (교육코스, 다문화 현실의 공휴일과 전통을 기념함, 친교 활동)
- 성체성사를 기념함을 통해서 공동체 구성원들이 다양한 사도직들에 적극적인 참여함.

그러나 한편 사람들이 환영 받거나 소속감을 느끼는 데 장애물이 있다:

- 종종 본당 공동체에는 익명성이 있다. 미사 밖에서 사람들은 서로를 알지 못한다.
- 어떤 사람들은 성직자와 교회 구성원들의 환영하는 태도가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일부 본당 그룹은 너무나 폐쇄적이며 새로운 아이디어와 카리스마를 가진 새로운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지하지 않는다.
- 공동체 구성원의 기원의 다양성은 긍정적이면서도 도전을 나타낼 수 있다. 때로는 다문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개방성이 부족하다. 무지와 편견이 있을 수 있다.
- 일과 가족의 의무는 본당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방해한다.

## 2. 청소년과 청년들

교회는 청소년들이 그리스도와의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그들과 더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함에 대하여 깊이 깨닫게 되었다. 교회는 중 장년층만을 위한 것으로만 보였던 다양한 사목 분야에 그들을 참여시키고자 노력하였다. 예를 들어, 400 명의 고등학생과 중학생 아이들이 청소년 사목에 참여했다. 6 개 가톨릭 고등학교에서 824 명의 학생들이 공청회에 참여했다. 그들의 의견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 청소년들을 본당 생활, 사목, 평신도 협의회에 참여시킨다.
- 젊은 구성원들에게 본당 사목 생활의 일부가 될 것을 권유한다. 청소년들은 그들이 본당과 사목의 소중한 부분이라고 느낄 필요가 있다.
- 더 많은 공청회를 개최하여 청소년들에게 더 잘 다가가는 방법과 그들이 본당 생활에 잘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본당과 학교의 청소년 참가자들의 중요한 관심사 중 하나는 정신 건강에 대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많은 젊은 참가자들은 우울증, 마약 중독, 자살 충동, 괴롭힘, 또래와 부모의 압력과 같은 현재 긴급한 문제에 대처하는 도움을 요청했다. 특히 교회와 본당에서 그들이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말한 고등학교 10 대들의 의견은 신랄하였다. 교회안에서 무시당한다는 느낌, 정신 건강과 사회 문제 안에서 겪는 어려움, 그리고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더 깊은 열망이 그러하다.

그들은 교회가 예수님께서 말과 행동 안으로 표현하신 가르침을 따르기보다는 배타적이고, 환영하지 않으며, 율법지향적이라고 생각한다. 반면에, 많은 이들이 본당이 가족 모임과 전통(특히 성사들을 통한), 본당 청소년 단체, 봉사 기회 및 활동의 원천이 됨을 높이 평가했다.

### 대학생들

뉴욕 대학교(Seton Hall University, Caldwell University, St. Peter's University, Felician University)에 있는 4 개의 가톨릭 대학교 학생들과 4 개의 공립 및 사립 대학과 대학 캠퍼스 사목 센터 학생들이 모여 공청회를 가졌다. 이 청년들은 약간 다른 질문을 받았지만 고등학교와 본당 청소년 단체 학생들의 성찰과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 다음은 질문의 일반적인 예와 학생들의 답변이다:

*오늘날 청년들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상대주의의 증가(교수, 정치인, 연예인, 심지어 일부 학부모와 같은 또래와 '권위 있는 인물들' 사이에서) 우리는 어떻게 옳고 그름 사이에서 길을 찾고 있는가?
- "문화를 정착시켜라" - 우리는 연애하는 법을 모른다.
- 외로움/소속감의 부족(부모님은 내가 또래 친구들과 있는 것보다 그들이 함께 학교를 다녔던 사람들과 더 가깝다)
- 사람들의 진정성 부족(소셜 미디어가 다시 영향을 미침)

-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공인, 우리를 실망시켰거나 신뢰할 수 없는 것으로 입증된 권위 있는 인물)
- “일치”에 대한 열망의 부족 – 사람들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의 관계만을 선호하는 것 같다.

'종교'의 범주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집단은 스스로를 "없음"이라고 묘사하는 사람들 - 곧, 그들이 어떤 종교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 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 사람들은 어떤 종교에도 속하지 않고, 신을 믿지도 않는 것일까?

- "권위 있는 인물들"(그들이 교회에 있든, 세상에 있든, 우리 가족에 있든)은 신앙생활의 중요성을 설명하거나 신앙으로 이끌어 주지 않는다.
- 종교적이지 않은 게 더 쉽다.
- 연예인의 영향 - 우리 또래는 유명한 연예인들의 영향을 많이 받고, 하느님에 대해 관심을 갖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다.
- “넌 너대로 해”(YOU DO YOU) - 심리가 괴로움을 준다. 독실한 믿음은 혼자만 간직하라는 말을 듣고, 심지어 독실한 믿음을 가진 것에 대해 이상하게 느낀다.

### 3. 신앙 교육(양성)

#### 신앙의 전수

가톨릭 학교의 청소년의 부모님들과 청년들을 위한 신앙 교육에 대한 것들이 반복적으로 거론됐다. 본당의 사목자들은 학부모를 성사 생활에 참여는 하지만 그 이상의 참여는 거의 하지 않는 “적당히 소외된 상태”로 보고 있다. 보고서들은 또한 부모들이 종종 자녀들에게 신앙에 대해서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거나, 자녀들의 질문에 대답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본당의 사목자들은 청년들과 부모들이 그들의 아이들에게 신앙을 전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성인들을 위한 신앙교육은, 청소년과 마찬가지로, 청년들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 집중하고 계획적일 필요가 있다. 많은 사람들은 "그들 자신이 모르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다!" 고 말한다. 본당의 지도자들은 피정과 같은 모임이나 신앙교육을 통해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는 양성에 중점을 뒀어야 한다고 믿는다. RCIA 과정과 소공동체 모임을 경험한 사람들은 성경말씀에 초점을 둔 소모임들이 청년들을 참여시키는 방법이라고 본다. 그들은 모든 연령대를 위한 신앙교육이 다시 고안될 필요가 있다고 믿는다.

공청회 참석자들은 다양한 방법들을 이용하여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잘 준비된 예비신자 프로그램, 바쁜 사람들을 위한 피정들, 흥미로운 강의들, 소그룹 모임들, 성경 공부 그리고 사람들이 본당에 참여하고 본당과 연결될 수 있는 다른 방법들.

또한 참석자들은 더 많은 성인 신앙교육과 교리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많은 이들이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에 대한 영성교육 부족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교회의 교리에 대한 무지나 오해도 존재한다. 대부분의 본당에는 교리에 대한 전담 교리교사가 없기 때문에 성인의 신앙교육은 나중 일이 된다. 그 결과로, 청년과 성인들, 특별히 자녀가 있는 기혼자 또는 독신자, Y&Z 세대의 속한 위한 사람들을 위한 신앙교육에 대한 우려가 존재한다.

### 성찬의 전례 거행

참석자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 이전에도 미사 참석률이 수십 년 동안 감소해왔다는 점에 주목했다. 가정에서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 일요일 미사에 참석하는 관행은 미사와 영성체에 대한 몰이해를 더욱 심화시켰다. 참석자들은 미사의 의미를 교육시키는 것이 심각하다고 말한다. 사람들이 미사와 성사들의 의미를 이해하도록 돕기 위한 창의적인 방법들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일부 참석자들 사이에서는 미사가 "지루하다"는 인식이 있었고, 그들의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다는 인식이 있었다. 또한 강론은 시대와 현실의 삶에 더 부합하고, 미사에 참석한 사람들과 연결되어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어린이를 위한 신앙교육

또한 본당 어린이들을 위한 더 나은 신앙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우려도 표명되었다. 청년들과 부모님들이 가톨릭 사회 교리와 성경을 포함하여 신앙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는 사실이 많은 사람들에게 문제를 일으킨다. 일부 신앙교육 프로그램은 가톨릭 전례 기도와 실천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보완되는 좋은 교육을 제공하기보다는 '신앙을 무너뜨리는' 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느낌이 있다. 몇몇 보고서는 바티칸이 보편적인 교리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논쟁이 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 더 명확하게 이해하고 싶은 열망이 있다고 언급되었다. 예를 들어, 불변하는 교의에 바뀔 수 있는 규정들.

### 가톨릭 학교 교육

뉴욕 대교구에는 가톨릭 학교의 오랜 전통이 있다. 여기에는 교구 초등학교, 고등학교, 수도원이 운영하는 사립학교와 대학교가 포함된다. 보고서는 가톨릭 학교 교육의 가치를 반영하였고, 가톨릭 학교 폐쇄에 대한 많은 의견과 아픔이 있었다. 폐교된 학교들이 있는 본당들은 본당의 종교교육 프로그램(Religious Education Program)으로 성취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적절하게 아이들의 신앙을 형성시키는 능력과 그러한 공동체를 상실했다고 언급했다.

많은 참석자들은 학교를 폐교하는 것이 신앙교육과 본당 공동체를 해친다고 확신했다. 또한 대교구 내 가톨릭 초등학교의 미래에 대한 진정한 우려도 있었다. 일부 본당에 학교를 다시 열자는 제안과 학교가 번창하도록 적절한 기부금으로 가톨릭 학교 교육을 통합하고 보존하는 더 좋은 계획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있었다.

## 4. 평신도의 교회 리더십 참여

## 평신도의 역할

평신도의 역할은 거의 모든 보고서에서 논의된 문제이다.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최근 교리교사들, 독서자들, 전례복사자들을 위해 마련한 과정의 예를 따라 평신도 사도직이 정식으로 받아들여질 때라고 지적했다. 참석자들은 특히 본당의 성직자와 교계제도에 의해 경청되어야 한다는 확신을 표명했다.

많은 사람들은 대교구의 모든 본당은 아니지만 많은 본당들 안에서 여성들이 직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인정했다. 여기에는 본당 사업관리자, 평신도 사목 위원, 각 사목 단체장, 본당 평신도협의회와 재정분과위원회에서의 역할, 본당 수탁자로서의 역할이 포함된다. 교구 총대리 역시 여성이고, 많은 여성들이 대교구 사무실에서, 가톨릭 학교의 교장으로, 교리교육 사무실의 장으로, 교구 경영 관리자 및 기타 주요 직책에서 일하고 있고 또한 대교구 사목 평의회 구성원이라고 언급했다. 많은 이들은 이러한 사실이 교구의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참석자들은 보통의 교구민들이 이러한 여성의 역할이나 50년 이상 뉴어크 대교구의 구성 요소 중 일부였던 것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고 확신했다. 참석자들은 교구 차원에서 더 나은 의사소통을 통해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때라고 말했다. 어떤 이들은 지금이 본당 생활 조정관(교회법 517-2)과 같은 다른 직책이 만들어지기에 적절한 시기라고 말했다.

### 참석자들의 의견 포함:

- 평신도의 목소리를 증폭시킨다: 특히 본당 의사 결정에서.
- 세대 차이를 존중하십시오: 젊은 평신도들은 본당 사목자들이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 있다고 느낀다.
-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교회직무에 초대하십시오. 일부 보고서는 교회직무가 폐쇄적인 것처럼 보이며, 새롭고 젊은 본당신자들이 각 직무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 평신도들이 자신의 관심사와 필요한 것, 의견들을 공유하면서 대담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조성하십시오.
- 평신도와 사목자들 사이의 협력을 촉진하여 평신도들의 목소리가 사목자에게 전달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
- 평신도를 이해하고 협력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사목자들에게 전문 교육을 제공하십시오.
- 다른 교회직책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교육을 장려하십시오. (교리교사, 전례 독서자, 성체분배 봉사자)

참석자들은 대교구에서 평신도 리더십 양성과 훈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많은 사람들은 또한 일반 가톨릭 신자들이 "세례를 통한 부르심"이라는 신학적 개념에 대해 더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어떤 사람들은 평신도들이 그들의 은사와 재능을 이해하도록 도와주고 그것을 본당 공동체에서 봉사하는 데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훈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히스패닉 공동체의 참가자들은 평신도의 역할에 관해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 일부 본당에서는 경청하는 태도가 없다. 평신도의 의견이 중시되지 않는다는 인상을 받는다. 젊은 사람들은 경청의 부재와 그들을 위한 공간이 없다는 느낌으로 고통받고 있다.
- 많은 참가자들은 평신도들이 의사 결정에 거의 또는 전혀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했다. 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며 누가 그러한 결정을 내리는가?
  - 많은 사람들의 인식은 사제들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 히스패닉 공동체 안에서 결정에 참여하는 것은 훨씬 더 제한된 것으로 보여진다.
  - 그것은 주임신부의 다른 문화들을 향한 태도나 평신도들이 참여하여 함께 결정하도록 하는 그의 개방성에 의존한다.
- 때때로, 평신도 중 일부는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데, 특히 본당 평신도 사목 협의회가 이미 존재하는 본당에서 그렇다.
- 모든 본당에 활발한 본당 평신도 사목 협의회가 있는 것은 아니다.
- 때때로 평신도 사목 회원들은 본당 공동체를 대표하지 않는다. 다양성이 부족하고 본당의 사목 협의회에서 히스패닉의 대표성은 제한적일 수 있다.
- 평신도들이 본당의 리더십에 참여하도록 초대되었을 때, 리더가 될 수 있도록 발전을 지원하고 훈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본당 신자들이 그들의 은사와 재능을 이해하고, 그것을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데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이해하도록 돕는다.
- 일부 본당의 사무 직원은 평신도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준다.
- 때때로 히스패닉계 또는 다른 문화권의 본당 구성원은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낌으로 본당 사목자의 필요와 초대에 응답하지 않을 수 있다.
- 성직자주의
- 때때로 평신도는 그러한 문제들 때문에 공동체에 봉사하는 자신의 책임에 대한 동기부여가 결여되고, 열정과 헌신이 부족해지는 원인이 된다.

### 교회안의 여성 리더십

교회 리더십에서 여성의 역할은 공청회에서 큰 관심을 끄는 주제였다. 90% 이상의 본당 참석자들은 모든 차원의 교회 리더십에서 여성이 더 큰 역할을 하는 것을 보고 싶다는 강한 열망을 나타냈다. 거의 모든 본당 참가자들은 여성들이 부제와 성직자로 서품될 때라고 말했다. 이러한 생각들은 매우 강한 좌절감을 동반했다. 많은 사람들은 여성이 부제나 사제로 서품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심각한 불평등과 여성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의 부족을 보여준다고 믿는다. 젊은 세대는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일부는 왜 여성이 서품을 받을 수 없는지에 대한 자녀들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개인적으로 토로했다. 그들은 오늘날 교회가 소통이 되지 않는다고 믿는다. 또한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참가자들은 현재 여성의 본당 활동 참여 수준을 확인하면서 본당 공동체와 더 큰 교회의 결정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 5. 운영



참가자들은 평신도의 역할이 단순히 본당 생활의 여러 직무와 활동들에 참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본당 운영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성직자와 수도자의 수가 줄어드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많은 이들이 본당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 결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열정을 보였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많은 참가자들은 교회에 다음과 같이 촉구했다.

- 리더십에 대한 더 많은 교육과 훈련을 제공한다.
- 보편 교회 안에서 리더로서 여성과 청년의 참여를 향상시킨다.
- 성직자주의를 감소시킨다.
- 토착화를 증진시킨다.
- 교회의 사회 교리를 복음화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지속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 선교사 성소 양성을 강화해야 한다. 많은 공동체에서, 더 많은 수의 성소자를 개발하기 위해 애쓰는 사제들과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 가정들, 교사들과 젊은이들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다시 심어줄 필요가 있다.
- 성직자 감소와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교구에서 성소 개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성직자들이 사목적 보살핌, 영적 성장과 복음화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교회의 행정 기능을 평신도, 부제나 수도자의 손에 맡겨지도록 해야 한다.
- 지역 사회 내에서 교구 리더들의 존재감이 더 커졌다. 그러나 사람들은 성명서와 유익한 홍보물을 넘어, 성직자들이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싶어한다.
- 본당 공동체에서 사람들이 자신이 그 공동체에 속해 있다고 느끼면 참여의식과 주인의식을 갖기 때문에 사목자는 그들의 소속감과 신앙을 강화시키는데 집중해야 한다.
- 평신도의 신학적 양성을 위한 장학금을 장려한다.

### 재정 협의회와 본당 평신도 사목 협의회

대부분의 본당에는 재정 협의회가 있지만 모든 본당에 평신도 사목 협의회가 있는 것은 아니다. 참가자들 사이에 평신도 사목 협의회가 있거나 없는 본당에 대한 혼란이 표출되고 있다. 어떤 이들은 대교구가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을 겪으면서도 지난 3년간 이들 평신도 협의회를 훈련시키고 육성하는 데 집중해 왔다는 점도 인정한다. 그러나 많은 보고서에서 평신도 협의회의 역할, 그들이 하는 일, 협의회 구성원이 어떻게 선출되는지, 사목자가 평신도 협의회를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요령 습득, 그리고 본당과 더 잘 소통하는 방법 등에 대해 더 잘 이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히스패닉 공동체는 추가 의견으로 본당 공동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제안했다:

- 시노드의 공청회가 하나의 예이므로, 평신도들이 본당의 사목 방향과 잠재적인 변화에 대한 대화에 참여할 수 있는 정기적인 기회를 제공하십시오.
- 평신도 안에서 리더들을 양성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를 창출해 주십시오.

- 교구는 교구 안에 존재하는 다양한 민족의 일치를 위한 사목 프로젝트를 만들어 주십시오.
- 교구가 제공하는 지원 그룹, 보건, 이민, 교육 등 다양한 사목 프로그램과 본당 간의 의사 소통을 개선해 주십시오. 평신도 협의회는 교구와 본당 간의 관계를 더 잘 이해해야 합니다.
- 추기경님과 보좌 주교님들이 평신도의 말을 들을 수 있을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십시오.
- 본당 재정 협의회가 예산을 개선하고 본당을 위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 할 수 있도록 지원하십시오.
- 교구가 이용할 수 있는 지원에 대한 인식을 재고하십시오.
- 본당과 평신도 협의회가 서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십시오.
- 각 본당을 대표하는 대교구 내 평신도 협의회를 구성하여 본당 공동체와 교구 간의 의사 소통의 다리가 되게 하십시오.

### 성직자

본당신자들은 일반적으로 그들의 본당신부와 사제들에게 호의적이었다. 그들은 본당 사목자의 노력과 보살핌에 감사했다. 동시에 많은 보고서들은 더 나은, 더 적절한 강론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참가자들은 사목자들이 정기적으로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기술과 재능을 감사하게 활용하며, 다양한 방식으로 의사 결정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요구도 피력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지불하고, 순명하는" 문화로 묘사하는 시대는 오래 전에 사라졌으며, 이러한 태도는 더 이상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말했다. 대교구의 다양한 본당으로부터의 보고서는 또한 성직자, 특히 젊은 사제들 사이에서 성직자주의를 제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심사는 Neo-Catechumenal Way의 구성원들과 본당신자들 사이의 분열이었다. 일부 본당신자들은 자신이 네오 그룹의 구성원들만큼 보살핌을 받지 못하거나 많은 기회를 제공받지 못한다고 믿는다.

교구는 많은 사제들이 본당에서 열리는 공청회에 참여했지만 특별히 사제들을 위해 준비한 공청회에도 참석하도록 초대했다. 안타깝게도 600여명의 교구사제들 중에서 단 70명의 사제들만이 참석했다. 공청회에 참여한 사제들은 일반적으로 사제단의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신앙의 여정을 함께하지 않으며, 이웃 본당의 사제들 간의 상호 작용이나 협력이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그들은 지역 사제협의회의 구조가 지역 관할 사제의 일치 의식에 의존하기 때문에 효과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역 주교들과 주교가 관할하는 지역의 사제들과 본당들이 함께 의견을 나눌 수 있다는 점은 교회가 신앙의 여정을 함께하고 있다는 의식을 촉진시켰다. 많은 참가자들은 추기경님과 더 나은 관계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 다른 성직자 공청회는 Redemptoris Mater Seminary (RM)에서 열렸으며, Neo-Catechumenal Way의 사제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모였다. 이 공청회에는 34명의 사제들이 참석했다.

사제들과의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은 다음과 같다.

- RM의 많은 사제들은 사제단 내에 매우 큰 분열과 다른 사제들에 대한 배타적인 움직임임을 느낀다. 그들은 성직자들의 다양성이 장애물이 아니라 풍요로움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들은 성직자들이 서로를 더 잘 알 수 있도록 더 자주, 소모임을 가질 것을 권고했다.
- 사회 정의 문제와 본당 사목에 함께 협력하는 것이 힘이 될 것이다.
- 참가자들은 다음과 같이 물었다: 고소당한 사제에 대한 권리가 있는가?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현재 사실이 아니라고 믿고 있으며, 그들은 이것을 불공평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 많은 사람들은 때때로 제도적 교회가 그들에게 도전과 실망을 안긴다고 지적했다.
- 참가자들은 본당신자들에게 상담이 더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교회는 이 세대의 현실에 개방적이어야 하며, 우리의 신앙과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할 때 새로운 언어를 사용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 많은 사람들은 교구가 여성, 유색 인종 및 히스패닉계를 포함한 리더십에서 더 큰 다양성을 필요로 한다고 말했다.
- 최근 몇 년 동안 교구 연례 모금이 사목자들에게 너무 큰 부담을 주고 있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 참가자들은 교구가 도심 지역 본당에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하고 본당 사이에 협업 관계를 새롭게 설계하고 재정을 보다 평등하게 분배하며, 부유한 본당들에서 가난한 본당들에게 재정을 공유하도록 권고했다.

### 성추행 스캔들

참가자들은 성추행 스캔들의 영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그들은 교계제도 대한 신뢰감이 깨졌고 교회 지도자들이 더 빨리 대응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본당 신자들은 자신들의 헌금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그들이 봉헌한 돈이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합의금이나 변호사 수입료로 사용되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했다.

성직자들 사이에서는 더 이상 성직자의 권리가 없다는 느낌, 델러스 현장은 부당하다는 느낌을 받고 있고 나아가 교구는 성직자가 인격적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어떤 사제들은 교구의 아무런 해결책 없이 수년간 일종의 립보 상태에 머물러있는 "정직"인 사제들이 있다고 점을 지적했다. 사제들에 대한 고발이 터무니없다고 인식될 때 조차도, 그들이 사목에서 제외되었고 그들의 성사집행권도 박탈되었다. 성직자들은 이것이 사제들 사이에 매우 낮은 사기와 패배주의적 태도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 6. 의사소통

많은 보고서들은 본당과 교구의 의사 소통 부족하다고 입을 모았다. 참가자들은 또한 교구 소식뿐만 아니라 바티칸 성명에 대한 지식 부족도 언급했다. 사목자와

본당신자들 사이에 프로그램 참여 방법, 배움의 기회, 그리고 교회 소식 전반에 대한 소통이 원활하지 않다고 말했다. 많은 참가자들이 다음과 같이 말했다.

- 사목자는 RCAN 이메일과 의사소통을 활용해야 한다.
- 사목자와 본당 직원들은 교구, 바티칸 그리고 많은 가톨릭 뉴스와 자료를 평신도에게 알려야 한다. 예를 들어, 토빈 추기경님과 뉴저지 주교님들의 뉴스와 발표, 성명 등을 다루는 교구의 뉴스 서비스인 JerseyCatholic.org 와 같은 인터넷 웹사이트가 홍보될 필요가 있다. 몇몇 본당은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하는 직원과 효과적인 웹사이트를 가지고 있지만 많은 본당들은 둘 다 가지고 있지 않다.
- 본당들은 의사 소통을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 본당 행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는 것이 표준이 되어야 한다.
- 교구와 교구민들 사이의 더 많은 양방향 의사 소통이 필요하다. 교구는 다양한 본당의 아이디어와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을 설계해야 한다. 교구는 교구와 본당 간의 원활한 대화를 위해 보다 지속적인 방법을 강구하고 본당의 필요와 문제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 본당은 본당신자들과 지역 언론에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IT 와 소셜 미디어를 더 잘 활용해야 한다. 교구는 본당을 훈련시키고 도움을 주어야 한다.

히스패닉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의사소통을 개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 지역 사회의 변화하는 요구에 끊임없이 귀를 기울이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 모든 문화와 언어 그룹을 존중해야 한다. 언어의 장벽은 의사소통을 방해할 수 있다. 본당신자들과 같은 언어를 사용하지 않거나 문화의 전통을 이해하지 못함으로 사목자는 공동체와 멀어지게 된다. 동시에 많은 참가자들은 히스패닉계가 아닌 일부 사제들이 스페인어를 구사하려고 노력하고 있음에 감사를 전했다.
- 다양성을 존중하라.
- 문화를 모든 복음화 노력에 필수적인 것으로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
- 본당의 여러 사도직 단체 사이의 소통과 일치를 고취시키십시오.
-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에 참석할 수 없는 사람들과의 친교와 애정을 유지하기 위해 소셜 미디어를 통해 미사를 계속 방송하십시오.
- 다른 그리스도인이나 믿지 않는 자들과 대화를 나누십시오.
- 교구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지원이 무엇인지 더 효과적으로 홍보하십시오.
- 교구 웹 사이트에 더 많은 스페인어를 포함하십시오.
- 교회에서 소외된 사람들과 소통을 시작하거나 유지하십시오. 많은 참가자들은 본당을 떠난 사람들과 개인적으로 만나는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 좋은 소식을 알리기 위해 미디어를 활용하십시오.

## 수도회들

대교구를 중심으로 한 일곱 개의 수도회가 공청회를 열었다. 여기에는 2 개의 관상 수도회, 1 개의 남자 수도회 그리고 4 개의 사도직 수녀회가 참가하였다. 다른 수도자들은 본당 또는 비영리 단체의 공청회에 참여했다. 수도자들의 반응은 본당과 다른 단체들의 반응과 비슷했다. 예를 들어, 그들은 교구와 수도회들 간의 지속적인 협력을 모델로 언급했다.

수도회의 참가자들은 성령께서 교회에 다음과 같은 점을 주목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 예수님의 제자로서 세례받은 모든 사람들이 세례를 통한 부르심과 헌신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도와야 한다.
- 더 포용적이고 모든 사람을 환영하십시오.
- 여성들이 강론대에서 강론하는 것을 허용하십시오.
- 여성을 사제와 부제로 서품하는 것을 고려하십시오.
- 여성의 재능을 인정하고 행정 직책에 포함시키십시오.

많은 사람들은 또한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교회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생각한다:

- 사목 및 행정 환경에서 여성을 위한 제한된 역할만을 부여.
- 성직자주의와 평신도, 특히 여성의 지위가 사제들의 지위보다 낮다는 인식.
- 의사 결정에 대한 참여 부족.
- 교회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하느님의 백성, 특히 여성들에 대한 포용력의 부족.

수도자들에게 초점을 맞춘 특별한 질문은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여성과 남성 수도자들로부터 가장 많이 들어야 할 조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였다. 응답자들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 사람들의 필요와 고통을 더 강조할 필요가 있다.
- 교회 안에 포용성의 모델을 검토하라.
- 꾸리아 (Curia)를 포함한 사목에서 여성의 역할을 확대하라.
- 성직자주의와 권의의식을 끝내라.
- 서품 받지 않았지만 양성된 사람들이 강론대에 서는 것을 허용하라.
- 여성을 부제나 성직자로 서품하라.

뉴저지의 주교들과 뉴저지 5 개 교구에서 일하는 수도자들의 장상들이 함께 모여 시노드를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그들은 교회의 문제들, 수도원장들과 주교들의 관계,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서로 지원하고 협력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참가자들은 이 연례 회의가 훌륭한 관계를 형성하고 협력과 존중을 위한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동의했다.

## 대교구

참가자들은 교구의 직원들이 교회의 사명을 수행하는 데 어떻게 더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압도적인 응답은 평신도 협의회 리더십에 대한 훈련, 평신도 리더십, 청소년들의 접근과 참여, 본당 간의 협력을 위한 기술, 사제들과 부제들의 강론 준비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 교구와 본당에서 중요한 의사 결정 역할을 하는 여성들, 전염병이나 성추행 스캔들로 인해 떠난 사람들과 새로운 사람들을 환영하고 초대하기 위한 방법 등에 대한 것이었다. 동시에 참가자들은 그들이 받는 지원과 훈련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수도자들은 또한 "뉴어크 대교구와 수도회가 설립한 비영리 단체가 어떻게 협력적으로 성장하고 서로를 지원할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을 받았다. 몇 가지 아이디어는 다음과 같다.

- LCWR 과 같은 조직의 경험과 노력에서 배우고 전 세계 여성과 그들의 권리를 위한 투쟁에서 그들과 함께 하십시오.
- 대교구는 기후변화, 인종차별,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환경회칙 *Laudato Si*에 필요한 지원을 하십시오.
- 본당과 학교를 통해 경제적으로 가난한 곳에서 계속해서 일하십시오.
- 교회의 문헌들을 삶 안에서 실천하는 방법을 찾고, 그것을 본당의 신앙교육의 도구로 활용함으로써 평신도들이 교회가 무엇을 가르치고 지원하는지를 더 잘 알 수 있도록 하십시오.

## 결론과 권고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서는 교회의 모든 신자들이 믿음과 일치 안에서 여정을 함께 하기를 바라신다. 시노드 협의 과정은 공동합의성(Synodalitas), 기도, 경청, 성령과 함께 모든 것을 식별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공동체 의식을 점화시키고 함께 식별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했다. 이번 공청회 보고서는 모든 신자들의 협력을 증진시키고 그들의 은사를 교회 생활에서 활용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참가자들이 시노드 여정을 계속하기 위해 뉴어크 대교구에 제안한 몇 가지 권고사항은 다음과 같다:

- 세례성사를 통해 각 개인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부르심을 받았고 "평신도 사제직"에 동참하고 있는지에 관한 교육을 교회의 지도자들과 평신도에게 제공하십시오.
- 공청회를 통해 많은 본당신자들이 세계적인 문제보다는 지역 문제에 더 집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본당신자들은 교회에 관한 더 많은 뉴스를 듣고 최근의 바티칸과 교구의 보고서와 사목 편지(성인 신앙교육)에 접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사목자와 본당 직원, 학교 및 캠퍼스 리더들은 교회가 말하고 있는 신앙과 현대 문제에 대해 더 많이 알 수 있는 자료를 많이 읽고, 연구하고, 성찰함으로써 "평생 교육"을 지향해야 한다. 예를 들어, 본당 신자들은 소공동체 모임, 성경 공부, 서적, 저널 연구 등을 통해 본당 또는 지역구 차원에서 함께 모일 수 있다.

- 가난한 사람들, 쉬는 교우, 신앙이 없는 사람들, 젊은 세대들, 그 외의 사람들 등, 곧 소외된 계층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할 지 모르는 본당신자들을 도와 타인에게 부드럽게 다가가 그들을 그리스도의 삶 안으로 초대하기 위한 훈련이 필요하다.
- 본당 리더십, 사목 및 단체, 사회 정의 실현과 봉사 활동에서 평신도 리더십 교육을 개발하십시오.
- 본당신자들 사이에서 시노드 과정을 계속하십시오 – 본당을 더욱 성장시키기 위해 사목자와 직원들은 신자들과 지역 사회의 요구를 이해할 수 있도록 경청해야 한다.
- 본당, 지역구, 대교구에서 토론 및 공동체 활성화 행사를 장려하십시오.
- 출생, 세례, 성사, 기념일, 장례식과 같은 삶의 중요한 순간에 본당이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십시오.
- 본당과 교구 안에서 더 많은 종교일치 운동과 종교 간 토론을 제공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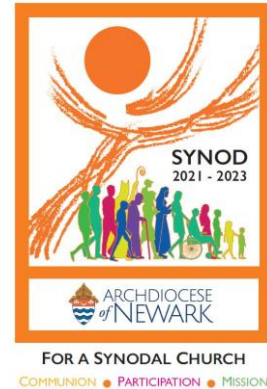
교구의 대표자들은 공청회의 피드백을 활용하여 시노드 과정을 구체화하고 본당과 사목을 더 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사람들이 제시한 많은 요구가 공청회 과정에서 명확하게 지적되었습니다. 현재 교구가 직면한 과제는 공청회 과정을 통해 지난 시간 동안 교구의 많은 성공을 확인하는 것과 동시에 필요성이 확인된 다양한 사목 분야에 도움과 훈련을 제공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참가자들은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성령의 말씀을 듣고, 생각을 나누고, 교회 지도자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지속적인 시노드 과정을 계속하고 싶다는 소망을 나타냈습니다.

본당 평신도 협의회는 이제 공청회를 통해 보고된 내용을 기반으로 사목 계획을 수행하는 새로운 방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또한 다른 사목 분야들에서도 똑같이 적용될 것입니다. 또한 대교구의 직원들도 이 피드백을 받아 자신의 업무계획에 사용할 것입니다.

뉴어크 대교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프란치스코 교황님과 함께 그리스도의 교회가 하나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가 되는 일치와 사랑으로 세상에 우리의 빛을 보여줄 수 있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와 복되신 어머니 마리아의 기도를 통해 우리는 이 지역 교회가 용기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 희망과 확신으로 가득 찬 미래를 창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 SYNOD LISTENING SESSIONS

*An Example for an Evening Session*

*7:00 PM to 9:00 PM or can be adapted to a 3 hour Morning Session*

**7:00 PM**      **Welcome by Pastor or Leader**  
Introductions in the table groups

**7:10 PM**      **Opening Song**  
All Are Welcome      (or other appropriate song)

### **Gathering Prayer**

**Leader**                      Come Holy Spirit

**All**                              fill the hearts of your faithful and kindle in them the fire of your love.

**Leader**                      Send forth your Spirit and they shall be re-created.  
and You shall renew the face of the earth.

**All**                              O God, who by the light of the Holy Spirit,  
did instruct the hearts of the faithful,  
grant that by the same Spirit  
we may be truly wise and ever rejoice in His consolation,  
through Christ Our Lord, Amen.

### **The Word of God                      Acts 2: 1-11, 14-19**

*A reading from the Acts of the Apostles*

When the time for Pentecost was fulfilled, they were all in one place together  
And suddenly there came from the sky a noise like a strong driving wind,  
and it filled the entire house in which they were.

Then there appeared to them tongues as of fire,  
which parted and came to rest on each one of them.  
And they were all filled with the Holy Spirit  
and began to speak in different tongues, as the Spirit enabled them to proclaim.

**The Word of the Lord**

**Thanks be to God**

### **Scripture Reflection Question**

- How have I experienced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in my life?



## Prayer

Leader

Come Holy Spirit,  
as we move into our reflection session

All

Be with us as a discerning guide to speak what is in our heart,  
our experience of Church, our joys and sorrows, hopes and dreams.  
May we listen carefully to each other  
so that we may discern how you, Holy Spirit,  
are calling us be church at this time in our history.

Leader

We ask this through Christ, our Lord.

All

Amen.

7:30 PM

### Listening Session Process

Video by Cardinal Tobin – What is the Synod on *Synodality* - why it is important  
Explanation of the process by Main Facilitator

- **Table Facilitator**

*The table facilitator ensures that all participants have the opportunity to dialogue about the questions, taking care to focus on the dynamics of group sharing and listening.*

- **Table Scribe**

*The table scribe records key points of the conversations, and all discern what are the key themes to present to the Holy Father through the United States Conference of Catholic Bishops. (USCCB)*

- **Feedback**

*A few groups may give feedback toward the end of the session.*

---

### Focus of the Synod on Synodality

#### How is the Holy Spirit calling us as a Church in the 21st Century?

A Synodal Church, in announcing the Gospel, “journeys together.”

The word “synod” traces its roots to the first centuries of the Church. Coming from Greek words meaning the “same road,” synod and synodality are expressions of the fundamental mystery of the Church: people who are gathered from every corner of the earth to be “a chosen race, a royal priesthood, a holy nation, a people of his own, so that you may announce the praises” of him who called you out of darkness into his wonderful light (1 Peter 2,9).

---- Cardinal Joseph W. Tobin, CSsR

As we begin our listening and sharing, all are invited to consider what the Holy Spirit is calling us to, what paths are being opened, and what our "inner spiritual movements" are: joy or sadness, confidence or anxiety, hope or no hope, or other.

### Table Process Suggestions to Help Participants Focus

- Facilitator asks all to reflect silently for five minutes, preparing their thoughts on each question.
- Each person can share his/her ideas for a maximum of two minutes.
- All reflect silently again, then sharing for a few minutes what enlightened or resonated with them.

**7:40 – 8:15 PM      Core Question ONE – 45 Minutes**

**How is this “journeying together” happening today in your parish community, campus ministry, university, school, youth group, religious congregation, or other area of Church life that you might participate in?**

*Pope Francis talks about “journeying together” or “walking together” down the same road. This means that we collaborate together and share responsibility for the building up of the whole Church and our parish or other ministry through evangelization, participation in worship, social justice, councils, and governance. As you reflect on the questions below, describe about how you have or*

**Table Discussion**

- Share a few examples of ways that you have experienced this “walking together” in your parish.

What is challenging about walking together or participating fully in your parish?

- Pope Francis encourages us to reach out beyond our active parish community and observe who is in

our local area. It is essential to look at who “used to be at our parish,” and who is not here, and those who might feel left out or on the margins.

How do we as a parish, reach out collectively or individually to those who are no longer participating in church? What are some ways to find out why they are not participating?

- As a result of our discussion, what are three steps we can take in our parish to grow in “walking together”?

1. \_\_\_\_\_
2. \_\_\_\_\_
3. \_\_\_\_\_

- Where in these shared experiences do you hear the voice of the Holy Spirit calling us to move forward?

**8:15 – 8:35 PM      Core Question TWO – 20 Minutes**

**How are we “walking together” as a Church, and what steps does the Holy Spirit invite us to take in order to grow in our journeying together?**

**Table Discussion**

- By our deep listening today, what actions do you hear the Holy Spirit asking our parish and the universal Church to take?

PARISH

UNIVERSAL CHURCH

- What practical steps are needed to include people in the areas of leadership, governance, and inclusion in the universal Church?

**8:35 PM      Local Questions – 10 Minutes**

**How are we “walking together” as a Church, and what steps does the Holy Spirit invite us to take in order to grow in our journeying together?**

**Table Discussion**

- How can the Archdiocese of Newark support you in your local parish?
- What are three steps we can take in our Archdiocese to grow more collaboratively for the future?

1. \_\_\_\_\_

2. \_\_\_\_\_

3. \_\_\_\_\_

*The table scribe records key points of the conversations, and all discern what are the key themes to present to the Holy Father through the United States Conference of Catholic Bishops. (USCCB)*

**8:35 PM      Evaluation of the Time spent together**

- How has this discussion given you the opportunity to listen and express and share your own experience of your parish and the universal Church?
- What is one hope you have for the Church as we continue to grow and listen to the Holy Spirit?

**8:45 PM      Sending Prayer**

**Leader** Let us take a moment of quiet as we reflect on what we have done here today...

**Reader** A reading from the Letter of Saint James                      Jas 1:21-22  
Dearest brothers and sisters:  
Humbly welcome the word that has been planted in you...  
[and] Be doers of the word and not hearers only.

**Leader** Come Holy Spirit,  
we ask you, that by your inspiration,  
all of our prayers and actions always begin from you  
and inspire others to know you more deeply.  
We ask this through Christ our Lord.

**All** Amen

**Leader** Let us go forth sharing a sign of peace.

## ORIGINAL NEWS ARTICLES AND COLUMNS

The following are original news articles and columns that appeared on the news website of the Archdiocese of Newark, [JerseyCatholic.org](https://jerseycatholic.org)  
Prepared by the Office of Communications  
(This content does not include syndicated CNS articles)

The synodal process: a window for dreamers

<https://jerseycatholic.org/the-synodal-process-a-window-for-dreamers>

Latest synod update: listening session reports under review

<https://jerseycatholic.org/latest-synod-update-listening-session-reports-under-review>

Felician Sisters offer their perspective at synod listening session

<https://jerseycatholic.org/felician-sisters-offer-their-perspective-at-synod-listening-session>



COLUMNS TOP STORIES

### Archdiocese of Newark walking together on the synodal path

Sister Donna Ciangio, O.P. • March 1, 2022

Listening sessions Listening Sessions have been going very well with parishes, youth groups, ministries, parish catechetical leaders and catechists, parents, Catholic school students, religious institutes, and more. The African American, African ... [LEARN MORE](#)

Synod on Synodality • [Edit](#)



COLUMNS LOCAL TOP STORIES

### Most Blessed Sacrament holds synod listening sessions with students

Father John Job • April 20, 2022

Pope Francis announced the 16th Ordinary Synod of Bishops, which will take place in 2023 in Rome. The Holy Father's theme for the synod is for a Synodal Church: Communion, ... [LEARN MORE](#)

Archdiocese • Parish • Schools • Synod on Synodality • [Edit](#)

Most Blessed Sacrament holds synod listening sessions with students

<https://jerseycatholic.org/most-blessed-sacrament-holds-synod-listening-sessions-with-students>

Latest synod update: what people are saying at listening sessions

<https://jerseycatholic.org/latest-synod-update-what-people-are-saying-at-listening-sessions>

Synod: high school students explore their relationship with the Church

<https://jerseycatholic.org/high-school-students-explore-their-relationship-with-the-church>

Synod: effective catechesis helping families journey together in new way

<https://jerseycatholic.org/effective-catechesis-helping-families-journey-together-in-new-way>

Archdiocese of Newark walking together on the synodal path

<https://jerseycatholic.org/archdiocese-of-newark-continues-walking-together-on-the-synodal-path>

Synodality and ecumenism require walking together, say cardinals

<https://jerseycatholic.org/synodality-and-ecumenism-require-walking-together-say-cardinals>

The Synod: A great opportunity for change in the Church

<https://jerseycatholic.org/the-synod-a-great-opportunity-for-change-in-the-church>

The Synod process continues in the Archdiocese of Newark

<https://jerseycatholic.org/the-synod-process-continues-in-the-archdiocese-of-newark>

Massive synod outreach to New Jersey Catholics underwa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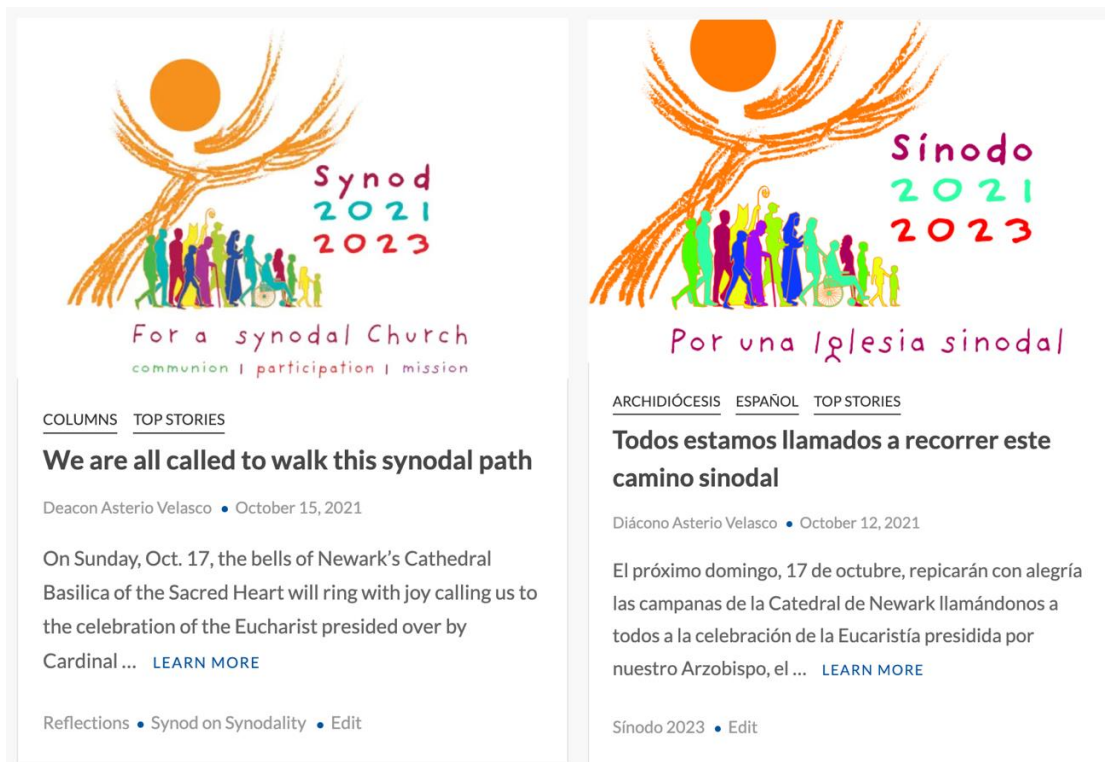
<https://jerseycatholic.org/massive-synod-outreach-to-new-jersey-catholics-underway>

Cardinal Tobin: The opportunities and risks of our synodal journey

<https://jerseycatholic.org/cardinal-tobin-the-opportunities-and-risks-of-our-synodal-journey>

Newark begins synodal journey with Catholics around the world

<https://jerseycatholic.org/newark-begins-synodal-journey-with-catholics-around-the-world>



**English Card:**  
Synod 2021 2023  
For a synodal Church  
communion | participation | mission  
COLUMNS TOP STORIES  
**We are all called to walk this synodal path**  
Deacon Asterio Velasco • October 15, 2021  
On Sunday, Oct. 17, the bells of Newark's Cathedral Basilica of the Sacred Heart will ring with joy calling us to the celebration of the Eucharist presided over by Cardinal ... [LEARN MORE](#)  
Reflections • Synod on Synodality • Edit

**Spanish Card:**  
Sinodo 2021 2023  
Por una Iglesia sinodal  
ARCHIDIÓCESIS ESPAÑOL TOP STORIES  
**Todos estamos llamados a recorrer este camino sinodal**  
Diácono Asterio Velasco • October 12, 2021  
El próximo domingo, 17 de octubre, repicarán con alegría las campanas de la Catedral de Newark llamándonos a todos a la celebración de la Eucaristía presidida por nuestro Arzobispo, el ... [LEARN MORE](#)  
Sínodo 2023 • Edit

We are all called to walk this synodal path

<https://jerseycatholic.org/we-are-all-called-to-walk-this-synodal-path>

Cardinal Tobin introduces 'synod on synodality' to faithful of the Archdiocese in new letter

<https://jerseycatholic.org/cardinal-tobin-introduces-synod-on-synodality-to-faithful-of-the-archdiocese-in-new-letter>

Synodality: clergy and laity walking together

<https://jerseycatholic.org/synodality-clergy-and-laity-walking-together>

Cardinal Tobin reflects on the term 'synodality' in latest edition of Rejoice in the Lord

<https://jerseycatholic.org/cardinal-tobin-reflects-on-the-term-synodality-in-latest-edition-of-rejoice-in-the-lord>

We are challenged to be spirit-filled evangelizers

<https://jerseycatholic.org/we-are-challenged-to-be-spirit-filled-evangelizers>

Black Catholics and diversity celebrated at special Mass

<https://jerseycatholic.org/black-catholics-and-diversity-celebrated-at-special-mass>



## ESPAÑOL

Se está llevando a cabo un acercamiento masivo del sínodo a los católicos de Nueva Jersey  
<https://jerseycatholic.org/se-esta-llevando-a-cabo-un-acercamiento-masivo-del-sinodo-a-los-catolicos-de-nueva-jersey>

Newark comienza viaje sinodal con católicos de todo el mundo

<https://jerseycatholic.org/newark-comienza-viaje-sinodal-con-catolicos-de-todo-el-mundo>

El cardenal Tobin presenta el ‘sínodo sobre sinodalidad’ a los fieles de la Arquidiócesis en una nueva carta

<https://jerseycatholic.org/el-cardenal-tobin-presenta-el-sinodo-sobre-sinodalidad-a-los-fieles-de-la-arquidiocesis-en-una-nueva-carta>

Todos estamos llamados a recorrer este camino sinodal

<https://jerseycatholic.org/todos-estamos-llamados-a-recorrer-este-camino-sinodal>

El proceso sinodal: una ventana para soñadores

<https://jerseycatholic.org/el-proceso-sinodal-una-ventana-para-sonadores>

Sinodalidad: clero y laicos caminando juntos

<https://jerseycatholic.org/sinodalidad-clero-y-laicos-caminando-juntos>

La Cuaresma representa un tiempo de esperanza y renacimiento

<https://jerseycatholic.org/la-cuaresma-representa-un-tiempo-de-esperanza-y-renacimiento>

El sínodo: una gran oportunidad de cambio en la Iglesia

<https://jerseycatholic.org/el-sinodo-una-gran-oportunidad-de-cambio-en-la-iglesia>

Todos estamos llamados a participar en el Sínodo

<https://jerseycatholic.org/todos-estamos-llamados-a-participar-en-el-sinodo>

Todos somos discípulos misioneros en salida

<https://jerseycatholic.org/todos-somos-discipulos-misioneros-en-salida>

## ORIGINAL VIDEO CONTENT

YouTube playlist: Our Synodal Journey: The Archdiocese of Newark participates in the global synodal listening process: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ayZD2viZAv5ym5oWdgLsVHt18qtggqD>

Our Synodal Journey: The Archdiocese of Newark participates in the global synodal listening process ▶ PLAY ALL

Video Title	Duration	Views	Time Ago
El Cardenal Tobin brinda información actualizada...	3:17	80 views	1 month ago
Our Synodal Journey: Cardinal Tobin gives update...	1:51	158 views	1 month ago
Our Synodal Journey: Listening session held at St...	1:49	379 views	3 months ago
Our Synodal Journey: Cardinal Joseph Tobin's...	3:51	721 views	3 months ago
Our Synodal Journey: Role of the table facilitator	26:38	1K views	4 months ago

*Playlist includes the following:*

Our Synodal Journey: Cardinal Tobin gives update on local synod effort

[https://www.youtube.com/watch?v=Ck\\_Ce57ZePM&list=PLayZD2viZAv5ym5oWdgLsVHt18qtggqD&index=3&t=25s](https://www.youtube.com/watch?v=Ck_Ce57ZePM&list=PLayZD2viZAv5ym5oWdgLsVHt18qtggqD&index=3&t=25s)

El Cardenal Tobin brinda información actualizada sobre el esfuerzo del sínodo local

[https://www.youtube.com/watch?v=8rA3Vxa\\_9Sg&list=PLayZD2viZAv5ym5oWdgLsVHt18qtggqD&index=2&t=10s](https://www.youtube.com/watch?v=8rA3Vxa_9Sg&list=PLayZD2viZAv5ym5oWdgLsVHt18qtggqD&index=2&t=10s)





## ARCHDIOCESE OF NEWARK SYNOD COORDINATING TEAM

---

His Eminence Cardinal Joseph W. Tobin, CSsR, Archbishop of Newark  
Most Rev. Manuel Cruz, Regional Bishop of Essex County  
Most Rev. Elias Lorenzo, OSB, Regional Bishop of Union County  
Most Rev. Michael Saporito, Regional Bishop of Bergen County  
Most Rev. Gregory Studerus, Regional Bishop of Hudson County  
Very Rev. John Chadwick, Vicar General  
Sr. Donna L. Ciangio, OP, Chancellor  
Mr. Lawrence Boland, Chief Operating Officer  
Fr. Bismarck Chau, Rector, Cathedral Basilica of the Sacred Heart  
Deacon Asterio Velasco, Director of Hispanic Ministry  
Ms. Milissa Else, Assistant Coordinator for Parish Strategies

### **Archdiocesan Offices**

Maria Margiotta, Director, Office of Communications  
Jai Agnish, Office of Communications  
Barbara Dolan, Superintendent of Schools  
Patricia Rodriguez, Director, Office of Catechesis  
Joanne DePasquale-Parent, Associate Director of Adult and Family Catechesis  
Thomas Conboy, Director, Office for Youth & Young Adult Ministry  
Richard Donovan, Associate Director for Events and Training, Office for Youth & Young Adult Ministry  
Sr. Patricia M. Wormann, OP, Delegate for Religious  
Robert Evers, Office of Worship  
Rev. James Chern, Director Campus Ministry  
Fr. John Gordon, Secretary, Office of Evangelization  
Dr. Ann Masters, Director, Pastoral Ministry with Persons with Disabilities  
Rev. Emeka Okwuosa, SDV, Coordinator for African American, African and Caribbean  
Apostolate with Sonja Garland and Rashaan Garland  
Sr. Dong Hong Marie Zhang, CSSF, Chinese Catholic Apostolate  
Cheryl Riley, Director, Mercy House  
Annette Miller, Coordinator, Mercy House  
John Westervelt, Director, Catholic Charities of the Archdiocese of Newark  
Maria Biancheri, Senior Grants Specialist, Catholic Charities of the Archdiocese of Newark  
Rev. Joseph D'Amico, Ministry to the Incarcerated  
Kathleen Dodds, DA, Assistant to the Chancellor  
Rev. Robert P. McLaughlin, MSW, PhD, Statistical Analysis  
Sr. Gerarda Panek, OP for the cover illustration and the Synod logo for the Archdiocese of Newark

Special Thanks to Archdiocesan Pastoral Council members who reviewed materials, facilitated groups, and assisted at listening sessions: Michael Cartelli, Philip DeRosa, Rev. George Klybus, Yalila Murillo, Lucy Cho, Kristen Mautone, Omar Navarro, Sr. Patricia Tavis, OP, Eduardo Viñeque, Deacon Walter Wiggins, Sonja Garlin, Marco Guerrero, Joelle Lingat, Maria Pilar Salamanca, Edwin Coker-Ofori, Christine Michel, Ana Serra-Prescott.

Also, Anita Foley, Pastoral Associate, Notre Dame Parish, North Caldwell, and members of the Hispanic Leadership Team.

Our deepest appreciation to all who prepared resources, facilitated groups, and to all in the Archdiocese who embraced this opportunity to pray, listen, and discern how the Holy Spirit is calling us as a Church of the Twenty-first Century.

